

'통합' 광주·무안공항 활성화 협업체계 가동

전남도, 공항공사·관광공사 등과 TF위원회 구성 교통체계 개편·기반시설 확충 등 공동 대응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항공사·한국관광공사 등과 TF위원회를 구성, 본격 협업에 나섰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도청 행정부지사에서 무안공항 활성화 TF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TF위원회는 전남도 박병호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전남관광협회, 광주전남연구원, 전남도립대, 무안부군수,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건설교

통국장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8일 전남도와 광주시, 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 위해 체결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업무협약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 전남도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으로의 통합에 따라 공항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 등 자체 발굴한 11개 사업을 보고했다. 이어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연구원 등의 자체 계획을 점검하고 논의

했다. TF위원회에서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을 대비해 대중교통 체계 개편, 무안국제공항의 기반시설 확충,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노선 조기 완공 및 주변 역세권 개발,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관광상품 개발, 국제노선 유치 등 항공노선 다변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대비한 활주로 연장, 수화물 처리시설 증설, 주차장 및 면세점 확충 등 기반·편의시설 개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또 통합 후 시민의 공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광주 광전터미널, 광주송정역, 나주 혁신도시 등 주요 교통 거점을 경유하는 셔틀버스 운행과 환승센터 등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 기반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며 "TF위원회 발굴 사업과 한국공항공사가 계획한 각종 사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국·도·지 등 이용객 증가를 대비한 양 공항 통합 준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순사건 민간인·경찰 유족회에 김영록 전남지사, 화해·상생 제안

김영록 전남지사가 여순사건 피해자인 민간인 유족회와 순직경찰 유족회를 각각 만나 아픔을 위로하고, 미래를 위해 '화해와 상생의 길'을 함께 갈 것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9일 여주시 문수청사에서 오전에는 민간인유족회 황순경 여주시 회장을 비롯한 시군 회장들을, 오후에는 여주시경우회 조용원 회장을 비롯한 순직경찰 유족들을 각각 만나 위로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올해 70주년을 맞는 '여순수천 10·19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에서 발생한 아픔이고 상처"라며 "여순사건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 차원에서 국회의원, 시군,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과 힘을 모아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인유족회 황순경 회장은 "여순사건 관련 유족들은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이 제

정돼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뤄질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순직경찰유족회 조용원 회장은 "민간인유족회와 순직경찰유족회가 좋은 방향으로 가려 한다"면서 "민간인유족회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 서로 용서하더라도 역사는 바로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여주시·순천시·지역사회단체와 함께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학술대회, 추모문화제, 창작오페라, 도올 김용옥 강연회, 자전거 전국순례대행진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벌인다. 또 여순사건 관련 시·군·구 공동으로 희생자 유해 매장지 안내판 설치 등 유적지 정비, 추모배지 제작, 동부지역 6개 시군 여순사건 위령제 개최 지원에 나선다. 전남도는 여순사건과 제주 4·3사건의 역사 현장 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고용 위기 극복 손잡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산업 위기지역 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이르면 내주 일자리 대책 발표"

9월 고용지표 개선 희망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는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위기지역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대책 지원에 재정 당국이 적극 나설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도 같은 생각으로 9개(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일자리는 계속 여의치 않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여러 대책을 만들기 위해 관계 장관과 2차례 회의를 했고 당·정·청 협의도 했다"며 "빠

르면 내주 고용 관련 증가단기 대책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책과 관련해 "단기 일자리"보다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뒀다. 12일 발표되는 9월 고용지표에 대해선 "지난달보다 개선하길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본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취업자 증가 폭은 7~8월 연속 1만명을 밑돌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부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영남·해남·거제·군산·목포·창원·통영·고성·울산시 동구 등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내년부터...20만원 이하 부과

광주시는 내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칠 계획이다. 부과 기준은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

역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이다. 다만,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등의 완속 충전시설 충전구역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단속에서 제외된다. 관공서 내 완속 충전시설 충전구역은 단속 대상이다. 9월 기준, 광주에는 공용충전기 226기(완속 144, 급속 82)가 설치됐다. 올해 하반기 공용 급속충전기 50여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내년 지적재조사 국비 24억 확보

토지 경계 분쟁 해소 기대

전남도는 내년 지적재조사사업비로 국비 24억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최대 규모이며, 도는 실제 경계와 지적도 경계의 차이로 인한 이웃간 토지 경계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1800억 원을 들여 82만 필지에 대해 재조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비 92억 원을 들여 5만 8770필지, 6만1801㎡의 경계 분쟁 요소를 해결했고, 올해도 22개 시·군 33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는 현실 경계를 중심으로 토지를 새로 조사·측량해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토지의 활용도와 이용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불규칙한 토지의 경계를 정리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맹지(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경계조정을 통한 진입로 확보로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등 지역경제 기여 효과도 크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학교주변 법규 위반 9000여건 적발

전남도는 가을 개학기 학교주변 교통 안전·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법규 위반 사례 9000여 건을 적발, 과태료 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학교주변 안전점검은 전남도와 22개 시·군, 전남교육청, 전남경찰청 등 25개 기관이 참여해 지난달 14일까지 20여일간 이뤄졌다. 학교 주변 유해시설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 총 4개 분야 1만2000건을 점검해 9000여 건을 적발했다. 위반 사례는 학교주변 각종 불법광고물 부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장 등 위반행위, 청소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순이었다. 또 학교 주변 사고위험 보호구역 안전 점검 결과, 차량 과속 위험지역, 방범용 CCTV 야간화질 저하,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파손, 신호등 부족 등 총 22개소의 위험요인을 진단했다. 임형근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학교 주변 안전점검에서 나타난 법규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교 및 통학로 주변 학생 안전 위해요인을 미리 차단해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2018년 무안공항 직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쭉~우~욱~

무안 ↔ 양양 취항 기념 항공 특가 77,000원 !!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매주 3회 정기편 운항(화3박4일 / 금, 일2박3일)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기타큐슈 에어텔 3일 299,000원
- 기타큐슈, 뷔부, 유후인 3일 [실속] 399,000원- / [폭격] 499,000원-
- 기타큐슈, 뷔부, 유후인 4일 [실속] 559,000원- / [폭격] 599,000원-

※ 불포함사항: 무안공항 수송 및 기사/가이드 경비

무안 ↔ 나가노 북알프스(마츠모토) 직항 전세계

10월 2일(화) ~ 10월 20일(토)

- 10월 2, 9, 16(화 출발) 북알프스, 가미코지 1,198,000원-
- 3박4일(토 출발)[실속] 998,000원- [폭격] 1,098,000원-
- 4박5일 골프(화 출발) 998,000원-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준특급] 699,000원- ◆ [특급] 799,000원-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매주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 세미패키지 실속, 오전출발
- [실속(세미패키지)] 오사카, 나라, 교토 699,000원-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3박4일 899,000원-

무안 ↔ 다낭 직항전세기 [매주 화(3박4일) / 금(3박5일)]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념품, 배개, 비디오 상영

[골드] 다낭, 후에, 호이안 4일 599,000원- / 5일 769,000원-
[프리미엄] 다낭, 후에, 호이안 4일 799,000원- / 5일 969,000원-

무안 ↔ 제주도

- 2박3일(주중) 249,000원-, 2박3일(주말) 324,000원-

[추석 연휴] 무안 ↔ 돛토리 직항 전세기

9월 23일(일) ~ 9월 27일(목), 총 5회 운항

- 9/23(일), 24(월) 2박3일 998,000원(ALL 포함)
- 9/25(화), 26(수), 27(목) 2박3일, 3박4일 639,000원-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9월, 10월(매주 월, 월, 목, 금 출발)

- 대만, 화련, 지우편, 야류, 서문정 3박4일 799,000원-
- 대만, 서문정, 지우편, 야류 2박3일 629,000원-

낭만이 넘치는 지중해 크루즈 10일

(이탈리아,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 광주 출/도착, ALL포함 4,600,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인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동다2003-1호

◆ 공동조건: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보험 가입(여행사), 1인당, 국내항공 5천만원, 관광진흥법(항공, 관광 및 모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거 요금: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 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경비 1인당 ◆ 예약시 계약서(유급 취소)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비업(업인, 기사/가이드 봉사, 선대관,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